

가스의부가



[해제]

<가사애부가>는 두루마리에 필사된 한글가사로 작자와 창작연대를 알 수 없는 작품이다. 화자는 며느리를 맞게 된 기쁨과 당부를 노래했는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작품으로 필사본 <애부가>가 있다. 이 가사는 자식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길 바라는 소망과 그런 며느리를 맞게 된 과정, 그리고 며느리에 대한 당부를 담은 노래로 경주 지역에 사는 작자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강동면에 있는 양동마을은 월성 손씨(경주 손씨)의 집성촌으로 유명한데 작자는 작품에서 이들 가문의 내력을 읊으며 그 집의 딸을 며느리로 맞게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월성 손씨의 시조(始祖)인 손경원(孫敬源)의 증손 계성군(鷄城君)을 비롯해 계성군의 아들 양민공(襄敏公), 양민공의 아들 경절공(景節公) 등의 명성을 언급하며 명문가와 혼사를 맞게 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과 창성한 가문을 위해서는 어진 자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또한 빼놓지 않았다.

[원문]

가사의부가

어화시승 스람들아 인니말숨 들어보소
 다런말숨 다바리고 조식소옥 면전후식
 시승의 스람들이 조식옥심 누업시리
 남조조식 조랑니면 어진조부 소원이요
 여조조식 조라니면 죠흔스회 소망이라
 이려타시 먹난마음 스람마다 인난이라
 나도또한 남과갓치 반득조를 칭증시겨
 신미연 스월부텀 중심의 원후기를
 엇지스 죠흔집의 어진조부 어드만니
 니집을 보중하여 유조유손 스라불고
 이려타시 먹난마암 심팔연이 디여스난
 시화식품 무조연의 길연을 만니고나
 비이부덕인 말숨이 그안이 명답인가
 근슈의 구변으로 죠흔곳 지시하니
 강동면 스호존의 월성 손시탁이
 향중의난 디성이요 일국의난 병족기라
 식득을 어논후면 숨디봉군 조손이라
 기성군 양민공이 초리로 명조디고
 경절공 우지선싱 동국명현 안이신가
 국조보감 동경지의 식척다 시려잇고
 문집과 시도비의 거록후신 횡적이라
 이려후신 명현후리로 그안이 깃부든가
 천연으로 그려든가 조연이 마음조화
 단단잇 니정후여 셔서을 거릭하고
 길원양심 같이닌이 씨죠흔 춘숨월이라

춘하경명 드옥조타 물식조차 죠흘시고
 동원도리 저복성은 무지한 초목이라
 저도또흔 썩을아라 동구의 만발일시
 앙긔방긔 우난모양 이기가 인승이요
 옥옥족족 고을야은 지즈우귀 안면인듯
 용용명안 기리기난 무지한 비조라도
 유일시조 썩을이라 구경몯식 나라오믹
 니미물이 저려한이 인심을 가지로다
 저안리 다흔후이 현구리 다한후이
 신인 그동보소 석딤화용 모양으로
 직빅을 정히하고 꺾깃와 안츠신이
 귀할시고 귀할시고 닌며나리 귀할시고
 만면이난 화기잇고 전신닌난 봉등그리
 오십평심 바린소원 오날날 더히로다
 거록훗신 손시딤이 날을위히 키와든가
 십팔연 먹은마음 그안이 꺾할손가
 귀범하다 닌며나리 겨릭조흔 닌며나리
 중심의 죠히보이 이만물조차 화기로다
 비피천슈 형손가이 나라오난 원성이요
 비피농의 형딤지의 모여안진 빗치로다
 너도또흔 적을아라 송송양양 그려튼가
 뒤동손 범의식기 쏠어안츠 젓을먹고
 압수복물 적싸마귀 반포하난 소리로다
 아람다온 닌며나리 효성이 지중한이
 비금쥬수 미물이나 강영하여 모여든가
 보고바도 실촌코나 너가닌기 층식틴이
 부모조식 조정이야 다말흫슈 업근이와
 하물며 구부간은 그안이 소중한가
 남이부모 부모숨고 남이조식 층식숨마
 층손전딤 흐련이와 전진조손 중할시고
 좃나라 쥬문왕은 틱조의 성득으로
 죠기왕천 흑온후이 팔빙연을 기흫하고
 만고성인 조스임은 조단부부 하압시고
 문후선싱 이국이도 가빈의 스헌쳐요
 위국명중 악강천도 단긴명한 흐야잇고
 동한씨 양훗이 도덕호라 즈을짓고
 한나라 포선이도 탄포송긔 축흔이고
 틱스적 흐조흐부 일필난가 디오리라

그리 불족시며 부인득이 지극하다
인간의 흥망성쇠 그손의 뉘여난이
니비록 무식하다 고금소적 디강보고
평심의 바리기를 어진조부 원히든이
너을한번 보고오후 일염의 안이친다
어그러온 너면목이 눈익숨숨 안이치고
덕기인난 너그동이 압퓌흘너 안이친다
동천의 발근달은 스람마다 죠하하고
니눈의 아람답기 너그동반 못흐도다
존저증지 발원외라 너그동 저려한이
중심인들 범연하야 밋밋도 민난지라
먹고임기 국정마라 근금흐면 인난이라
시가인심 극정마라 화순흐면 편한이라
그릭을 스람들이 화복이 저기잇다
효조난 효조부하고 효부난 효부만니
헝지하신 정조임은 정원이도 효조되고
조미하든 톱임이난 톱스되 효부로다
너도또한 휘스갓치 유한정득 흘죽서면
하날임이 감동흐스 적비스남 할그시오
수부다남 인간오복 조연이 항복하리
축슈한다 축슈한다 하날임기 축슈한다
바리난이 뉘며나리 비난되로 하여주소
아히야 위지마라 쏜갓치 너을보고
도라와서 칭각한이 보와든가 안바든가
조식스럼 금치못히 밋친갓스 지여밧다
이가스 남이보면 천신춘타 윗시리라
남익눈의 비지마라 너익시부 취소할나
남이호 복시그든 남익스정 칭각히서
조다그나 물릭머소 다젧다 위지마라
돌너드려 칭각흐오 말연신며 기인난이
깊히깊히 칭각하야 며나리를 쥬키하소

[현대역]

가사애부가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다른 말씀 다 버리고 자식 소욕(所欲) 먼저 하세
 세상의 사람들이 자식 욕심 누 없으리
 남자(男子) 자식 자라나면 어진 자부(子婦)¹ 소원이요
 여자(女子) 자식 자라나면 좋은 사위 소망이라
 이렇듯이 먹는 마음 사람마다 있느니라
 나도 또한 남과 같이 만득자(晩得子)²를 성장(成長)시켜
 신미년(辛未年) 사월(四月)부터 중심(中心)³에 원하기를
 어찌하면 좋은 집의 어진 자부(子婦) 얻어 만나
 내 집을 보존하여 유자유손(有子有孫)⁴ 살아볼꼬
 이렇듯이 먹는 마음 십 팔년(十八年)이 되었구나
 시화새풍 무자년에 길년(吉年)⁵을 만났구나
 비매부덕인 말씀이 그 아니 명답인가
 근수의 구변(口辯)⁶으로 좋은 곳 지시하네
 강동면(江東面) 사호존의 월성손씨(月城孫氏)⁷덕이
 향중(鄉中)에는 대성(大姓)⁸이요 일국(一國)에는 명족(名族)이라
 세덕(世德)⁹을 언급하면 삼대봉군(三代封君) 자손(子孫)이라
 계성군(鷄城君)¹⁰ 양민공(襄敏公)¹¹이 차례로 명조(名祖)¹²되고
 경절공(景節公)¹³ 우재(愚齋)¹⁴선생(先生) 동국명현(東國名賢) 아니신가
 국조보감(國朝寶鑑)¹⁵ 동경지(東京誌)¹⁶에 사책(寫冊)마다 실려 있고
 문집(文集)과 신도비(神道碑)¹⁷에 기록하신 행적(行蹟)이라
 이러하신 명현 후대로 그 아니 기쁘던가
 천연(天緣)¹⁸으로 그러하든가 자연이 마음조화
 단단히 내정하여 새서울 거래하고
 길원양심¹⁹ 가려내니 때 좋은 춘삼월(春三月)이라
 춘하경명 더욱 좋다 물색조차 줄을시고
 도원도리(桃園桃李)²⁰ 저 복성은 부지한 초목(草木)이라
 저도 또한 때를 알아 동구(洞口)에 만발일세
 앙긋방긋 웃는 모양 여기가 인상(人相)이요
 옥옥족족 고은 야은 지자우귀 안면(顔面)인듯
 용용명안 기러기는 무지한 비조(飛鳥)²¹라도
 우일시조 대울이라 구경못해 날아옴에
 내 미물이 저려하니 인심을 가지로다
 전안례(奠雁禮)²² 다한 후에 현구례(見舅禮)²³ 다한 후에
 신인 거동 보소 석대(碩大)²⁴화용(花容)²⁵ 모양으로

재배(再拜)를 정히 하고 곁에 와 앉았으니
 귀할시고 귀할시고 내 며느리 귀할시고
 만면(滿面)26에는 화기(和氣)27가 있고 전신(全身)에는 봉등 그리
 오십 평생 바란 소원 오늘날 (해석불가)
 거룩하신 손씨덕이 나를 위해 키웠든가
 십팔년(十八年) 먹은 마음 그 아니 쾌할 손가
 (해석불가) 내 며느리 거래 좋은 내 며느리
 중심을 좋게 보니 이 만물(萬物)조차 화기(和氣)로다
 비피천수(毖彼泉水)28 형산가애 날아오는 원성이요
 비피농에 형제지애(兄弟之愛) 모여 앉은 빛이로다
 너도 또한 적을 알아 상상양양 그렸던가
 뒷동산 범의 새끼 끓어 앉아 젖을 먹고
 앞수 보물 적까마귀 반포하는 소리로다
 아름다운 내 며느리 효성이 지중하니
 비금(飛禽)29주수(走獸)30 미물(微物)이나 강령하여 모였던가
 보고 봐도 싫지 않고나 너가 내게 자식이 되니
 부모자식(父母子息) 자정(慈情)31이야 다 말할 수 없거니와
 하물며 고부(姑婦)간은 그 아니 소중한가
 남의 부모(父母) 부모(父母) 삼고 남의 자식(子息) 자식(子息) 삼아
 자손전대 하려니와 전진자손 중할시고
 주(周)나라 주문왕(周文王)32은 태자(太子)33에게 성덕(聖德)34으로
 조기왕적(肇基王迹)35하게 하온 후에 팔백년(八百年)을 기쁨하고
 만고성인(萬古聖人) 자사님은 조단(朝端)36 부부(剖符)37 하옵시고
 문후선생(文侯先生)38 이극(李克)39이도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요40
 위국명장(魏國名將) 악강천도 단긴명한 하여있고
 동한(東漢)41때 양훅(梁鵠)42이 도덕호라 자(字)를 짓고
 한(漢)나라 포선(鮑宣)이도 탄포상객 착한 이고
 태사적 효자효부(孝子孝婦) 일필 난가(難家)43 되오리라
 그리 볼 작시면 부인 덕이 지극하다
 인간의 흥망성쇠(興亡盛衰)44 그 손에 메였나니
 내 비록 무식하나 고금사적(古今史跡) 대강 보고
 평생에 바라기를 어진 자부(子婦) 원하더니
 너를 한 번 보고 온 후 일염에 아니 친다
 어그려온 너 면목이 눈에 삼삼 아니 치고
 덕이 있는 너 거동이 앞에 흘러 아니 친다
 동천(東天)에 밝은 달은 사람마다 좋아하고
 내 눈에 아름답게 너희 동반보다 못하도다
 존저중재 발원외라 너 거동 저러하니

중심인들 범연(泛然)하여⁴⁵ 맛있게도 믿는지라
먹고 입기 걱정마라 근검(勤儉)하면 있느니라
시가인심(媿家人心) 걱정마라 화순(化順)하면 편하니라
(해석 불가) 사람들의 화복(禍福)이 저기에 있다
효자(孝子)는 효자부(孝子婦)하고 효부(孝婦)는 효부(孝婦)를 만나
행지하신 정자임은 정원이도 효자(孝子) 되고
자미하던 태임이는 태사댁 효부(孝婦)로다
너도 또한 휘사같이 유한 정덕(貞德) 활작 서면
하느님이 감동하사 적배(嫡配)⁴⁶ 사남(四男) 할 것이요
수부다남(壽富多男)⁴⁷ 인간오복(人間五福)⁴⁸ 자연이 행복하리
축수(祝手)한다 축수(祝手)한다 하느님께 축수(祝手)한다
바라나니 내 며느리 비는 대로 하여 주소
아이야 울지 마라 꿈같이 너를 보고
돌아와서 생각하니 보았든가 안 보았든가
자식 사럼 금치 못해 미친 가사(歌辭) 지어봤다
이 가사(歌辭) 남이 보면 하찮다고 웃으리라
남의 눈에 보이지 마라 너의 시부(媿父) 취소할라
남이 혹 보시거든 남의 사정 생각해서
자다가 몰래 보소 다 젖는다 울지마라
둘러드려 생각하오 (해석 불가)
깊이깊이 생각하여 며느리를 좋게 하소

[각주]

- 1) 자부(子婦) : 며느리.
- 2) 만득자(晩得子) : 늦어서 낳은 자식.
- 3) 중심(中心) : 심중(心中)
- 4) 유자유손(有子有孫) : 자식, 손자와 같은 후손이 있음.
- 5) 길년(吉年) : 결혼하기 좋은 해나 나이.
- 6) 구변(口辯) : 말을 잘하는 재주.
- 7) 월성손씨(月城孫氏) : 양동마을에 씨족을 형성한 경주 손씨.
- 8) 대성(大姓) : ①후손이 번성한 성씨.②지체가 높은 집안의 성씨.
- 9) 세덕(世德) : 대대로 쌓아 내려오는 미덕.
- 10) 계성군(鷄城君) : 손사성(孫士晟).월성 손씨의 시조 손경원(孫敬源)의 증손.조선 세종 때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하여 계성군(鷄城君)에 봉해짐.
- 11) 양민공(襄敏公) : 손소(孫昭).계성군(鷄城君)의 둘째 아들.조선시대의 문신.1467년 이시애의 난 때 종사관으로 출정, 난이 평정된 뒤 적개공신 2등에 책봉 책록되었으며 내성시정에 특진됨.공조참의 등을 거쳐 계천군에 봉해졌고 이어 진주목사 등을 지냈음.
- 12) 명조(名祖) : 이름난 조상.
- 13) 경절공(景節公) : 손중돈(孫仲墩).양민공(襄敏公)의 아들.본관은 경주(慶州).자는 대발(大發), 호는 우재(愚齋).조선 중기의 문신.
- 14) 우재(愚齋) : 손중돈(孫仲墩)의 호.
- 15) 국조보감(國朝寶鑑) : 조선 역대 임금의 치적(治績)에서 모범이 될 만한 일을 실록에 의하여 엮은 편년체의 역사책.세조 3년(1457)에 수찬청(修撰廳)을 설치하여 이듬해에 신숙주·권남 등이 태조·태종·세종·문종 4대의 보감(寶鑑)을 완성하였고, 편찬을 계속하여 순종 때에 완성하였음.90권 28책.
- 16) 동경지(東京誌) : 『동경잡기(東京雜記)』.1845년(헌종 11) 경주부윤 성원묵(成原默)이 증보·간행한 경주의 지지.3권 3책.목판본.동경은 고려 때 경주의 이름.작자 미상으로 전해오던 『동경지(東京誌)』를 1669년(현종 10) 부윤 민주면(閔周冕)이 진사 이채(李採) 등과 함께 증수하여 『동경잡기(東京雜記)』라고 이름 붙여 간행하였음.이 책은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현존하는 최고의 개별 읍지로서 19세기 경주의 지역 사정과 함께 신라의 전설·역사·풍속·문물 등을 매우
- 17) 신도비(神道碑) : 임금이나 종이품 이상의 벼슬아치의 무덤 동남쪽의 큰길가에 세운 석비(石碑).
- 18) 천연(天緣) : 하늘이 맺어 주어 저절로 정하여져 있는 인연.
- 19) 길원양심 : 길월영신(吉月令辰)의 오기로 보임.길월영신(吉月令辰)이란 좋은 달과 좋은 때를 말함.
- 20) 도원도리(桃園桃李) : 복숭아나무가 많은 정원의 복숭아와 오얏.또는 그 꽃이나 열매.
- 21) 비조(飛鳥) : 날아다니는 새.
- 22) 전안례(奠雁禮) : 전통혼례에서 결혼 당일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신부집에 갈 때 기러기를 가지고 가서 초례상(醮禮床) 위에 놓고 절을 하는 절차를 말함.예전에는 산 기러기를 썼으나 지금은 나무 기러기를 씀.
- 23) 현구례(見舅禮) : 신부가 시댁 친지들에게 처음으로 절을 올리는 예로 우귀일(于歸日)이나 다음날 아침에 행함.
- 24) 석대(碩大) : 원문이

- 25) 화용(花容) : 꽃과 같이 아름다운 얼굴.
- 26) 만면(滿面) : 온 얼굴.
- 27) 화기(和氣) : 생기 있는 기색.
- 28) 비피천수(毖彼泉水) : 흐르는 저 샘물.
- 29) 비금(飛禽) : 날아 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30) 주수(走獸) : 기어 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 31) 자정(慈情) : 어머니의 정, 곧 부모의 정을 이룸.
- 32) 주문왕(周文王) : 중국 주나라 무왕의 아버지.이름은 창(昌).기원전 12세기경에 활동한 사람으로 은나라 말기에 태공망 등 어진 선비들을 모아 국정을 바로잡고 용적(戎狄)을 토벌하여 아들 무왕이 주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주었음.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의 전형으로 꼽힘.
- 33) 태자(太子) : 문왕의 아들 무왕(武王).주나라의 첫 군주.
- 34) 성덕(聖德) : 임금의 덕을 높여 이르는 말.
- 35) 조기왕적(肇基王迹) :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는 기초.
- 36) 조단(朝端) : 조신(朝臣)의 수위(首位).
- 37) 부부(剖符) : 부절을 쪼갬다는 뜻으로, 제후를 봉함을 이르는 말.옛날에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에 부절을 양분하여 반쪽은 제후한테 주고 반쪽은 보관하였다가 후일의 신표로 삼았음.
- 38) 문후선생(文侯先生) : 중국 전국시대 위(魏)나라의 군주.
- 39) 이극(李克) : 중국 전국시대의 정치가.위나라 문후에게 등용되어 법률을 발포하고 중국 성문법의 기본을 정하였음.
- 40) 가빈(家貧)에 사현처(思賢妻)요 : 이극이 위문후에게 “집안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훌륭한 재상이 생각나게 된다.”고 했던 말의 앞부분.
- 41) 동한(東漢) : 후한(後漢).
- 42) 양혹(梁鵠) : 중국 후한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서예가.
- 43) 난가(難家) : 가난하여 살림 형편이 어려운 집안.
- 44) 흥망성쇠(興亡盛衰) :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
- 45) 범연(泛然)하여 : 차근차근한 맛이 없이 데면데면하여.
- 46) 적배(嫡配) : 적자(嫡子)의 아내.
- 47) 수부다남(壽富多男) : 오래 살고 부유하며 아들이 많음.
- 48) 인간오복(人間五福) :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다섯 가지 복.보통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효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을 이르는데, 유효덕과 고종명 대신 귀(貴)함과 자손이 중다(衆多)함을 꼽기도 함.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